

**제18회 인제빙어축제 4일까지 남면 부평리 빙어호**

**강원**

내설악과 소양강이 빚어낸 아름다운 얼음 별판, 삼삼오오 모인 강태공들이 얼음 아래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은빛 요정'들과 사투를 벌인다.

올해도 눈과 얼음으로 뒤덮힌 소양호 일원이 거대한 놀이천국으로 변신했다. 우리나라 원조 겨울 축제인 제18회 인제빙어축제가 지난 27일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서 개막됐다. 오는 4일까지 9일간 빙어마당, 겨울마당 등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가뭄과 이상기후로 열리지 못했던 빙어낚시가 4년만에 재개돼 짜릿한 손맛을 선사하고 있다. 5만3000㎡ 규모의 빙어 얼음낚시터에는 6000여 개의 얼음구멍이 마련돼 5000~6000여명이 동시에 입장해 빙어 얼음낚시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얼음축구대회, 얼음 썰매, 얼음 봅슬레이, 아이스 범퍼카, 스케이트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눈과 얼음의 은빛 나라, 대형 눈 조각 작품, 얼음성곽, 얼음 미로 등의 육상 시설물들이 들어서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얼음 봅슬레이

빙어천국 **氷**  
**氷** 놀이천국

▶제18회 인제빙어축제가 지난 27일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광객들이 빙어낚시를 즐기고 있다.



◇호수의 요정 = 빙어는 호수의 요정으로 불린다. 반짝이는 은빛에 커다란 눈과 날렵하고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다. 냉수성 어종이라 겨울이 되면 급격하게 몸집을 키운다. 그레 봤자 성인 손가락과 비슷한 크기의 15cm 내외로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얼은 오이 향의 살 맛과 사각하는 식감이 일품이다. 특히 북한강 줄기에 있는 소양호 등지의 빙어가 제일이다.

주 활동시기인 겨울철에 가장 맛이 좋다.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육질이 연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빙어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호수의 얼음을 깨고 견지대나 소형낚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맛보다는 짜릿한 손맛이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빙어는 아형성이라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에 잘 잡힌다. 빙어낚시에는 견지대낚시가 필요하다. 낚시줄에 조그만 바늘이 몇 개 달렸고 그 아래에는 붕돌을 묶고, 위에는 찌를 끼워 단다. 미끼는 미끼용으로 양식을 한 깨끗한 구더기를 이용한다. 직경 30cm 내외의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시를 담가두고 기다리면 된다. 횃

감과 튀김 감, 매운탕 감까지 잡을 수 있다.

◇맛있는 축제 = 빙어는 잡은 자리에서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직접 잡은 빙어를 빙어요리 마차에서 즉석에서 튀겨 먹는 것도 별미다. 또 새콤 달콤 야채와 과일을 곁들인 빙어 회 무침이 거부감을 없애 손쉽게 즐기기에 좋다.

빙어에 각각의 다른 색 튀김옷을 입힌 후 친숙한 맛살과 향긋한 쪽파를 함께 튀긴 빙어 오색 꼬지도 별미로 꼽힌다. 바삭함과 쫄깃함, 양념으로 맛을 낸 빙어도리뱅뱅도 생선을 꺼리는 아이들까지 즐길 수 있는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인제지역에서 자라는 산채를 넣어 풍부한 식이섬유와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빙어보양탕이 있다. 쫄고 움츠린 겨울철 입맛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올해 축제장에는 2018 인제 빙어요리 시식평가회를 통해 엄선된 음식점 24곳이 입점해 색다른 먹거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눈과 얼음에서 즐기는 겨울 놀이 천국 = 광활한 얼음 별판 위에서 즐기는 빙어낚시와 함께 대자연과 함께하는 놀이터도 마련됐다. 얼음 썰매, 얼음 봅슬레이, 아이스 범퍼카 등 체험행

**빙어천국**

4년만에 빙어낚시 재개  
6천여명 동시 입장 가능  
남녀노소 짜릿한 손맛  
직접 잡아 먹으니 별미

**놀이천국**

얼음축구·썰매·봅슬레이  
아이스 범퍼카·눈싸움 대회  
얼음 성곽·미로 놀이터 변신  
눈 조각 사이 화려한 조명도

사가 열린다. 또 눈과 얼음의 은빛 나라, 대형 눈 조각 작품, 얼음성곽, 얼음 미로 등 눈과 얼음으로 연출하는 색다른 풍경에 많은 인파가 찾아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25m 스피드 경기와 4인 가족의 100m 릴레이 이벤트 경기인 얼음 썰매대회도 매일 한 차례 운영된다. 또 관광객들이 편을 나워 집단 눈싸움을 진행하는 눈싸움 대회도 이색적인 즐길거리로 꼽히고 있다.

야간에는 대형 눈 조각 전시장을 중심으로 환상적인 조명이 설치돼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랑 고백 이벤트가 마련돼 감쪽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연인 및 가족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첫번째 사랑 고백 이벤트에서는 한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7년을 살아온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해 관광객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인제 키즈파크에서 진행된 어린이 직업체험 부스는 첫 주말에만 1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으면서 부스 내에 마련된 CSI 과학수사대, 승무원 교육관, 신생아실 등 이색 직업체험을 위한 예약 행렬이 줄을 잇기도 했다.

◇원조에서 대표 겨울 축제로 = 빙어축제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깨끗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담수어종인 '빙어'를 축제테마로 설정해 1998년 시작했다.

2000년 강원도 지역축제 중 가장 성공한 축제, 2003년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예비축제와 행정자치부 최우수축제에 선정됐다. 또 2008~2009년 문화관광 유망축제, 2012년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의 한국 여행 시 꼭 가봐야 할 곳

아름다운 50곳, 2013년 외지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강원도 대표축제 1위 등 국내 겨울축제 원조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지속하고 있다.

빙어축제는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과 이미지 제고, 경제적 파급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겨울가뭄과 이상 고온에 의한 기상 이변, 관광객의 축제 참여율이 점차 둔화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러 우려에도 올해는 연일 계속된 강추위로 인해 높이 12m, 길이 220m의 수증보 설치로 조성된 인공호수인 빙어호가 풍광 얼어붙었다.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을 훌쩍 넘는 30cm 이상 유지돼 그동안 제기되던 기상 이변에 대한 우려도 잠깐 무어났다.

축제 주관사인 인제근문화재단은 소양호에서 잡은 빙어 10여톤을 빙어호에 방류하고 일찌감치 관광객 맛이를 완료했다. 축제가 개막한 지난 주말에만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며 옛 명성을 재확인했다.

문화재단은 향후 자연의존형 축제의 한계 극복과 지역자원을 핵심적 토대로 하는 새로운 겨울축제 테마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추동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강원일보 김천열기자 /사진=강원일보·인제군



명동 자작나무숲에서 열린 자작나무 숲 마라톤대회 참가한 관광객들이 이색 체험을 즐기고 있다.

- 光州日報 江原日報 韓南日報
- 경남신문 대전일보 충북신문
-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신문

新韓道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설연휴패키지 | 2018. 2. 14 ~ 18 (5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 스탠다드룸 ₩ 60,000
- 조식별도 1인 ₩12,000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